

“토종폭격기? 내가 최신행!”

V리그 개막 D-3 | 2 박철우 김학민 문성민 '라이벌 빅뱅'

펼쳐 난 김학민·문성민 우승컵 놓쳐 헛심 시즌 부진 연봉 깎인 박철우도 이 악물어 “작년시즌 아픔 만회” 토종거포 반란 꿈꿔

여자부 한송이 등 황연주 독주에 도전장

토종 거포의 라이벌 빅뱅을 주목하라.

22일 개막하는 NH농협 2011~2012 V리그의 불거리 중 하나는 삼성화재 박철우(26·삼성화재)와 김학민(28·대한항공), 문성민(25·현대캐피탈)의 대결이다. 지난 2년 간 남자배구는 가빈(삼성화재) 천하였다. 가빈이 공격 전 부문을 석권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내 공격수들이 살아야 더 많은 관심을 끌고 팬도 불러 모을 수 있다.

●작년 아픔 반복 없다

박철우와 김학민, 문성민 모두 ‘권도중 레’를 꿈꾼다. 작년 시즌 아픔을 만회하기 위해 칼을 갈았다.

김학민과 문성민은 작년 시즌 국내 공격수들 가운데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다. 김학민은 정규리그 최우수선수에도 올랐다. 그러나 둘 다 포스트시즌 때는 제 기량을 발휘 못해 삼성화재에 우승컵을 내줬다. 시즌 내내 잘 하고도 중요한 알맹이는 따지 못했다.

박철우는 정반대다. 팀을 옮겨 삼성화재의 4연패를 이끌었지만 개인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챔피언결정전 때 박철우가 부상으로 제외되자 팀이 더 안정을 찾는 모습에 쓴웃음을 지어야 했다. 연봉도 5000만원 삭감당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올해는 팀 우승과 함께 박철우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들의 대결은 2라운드부터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문성민이 최근 어깨 부상을 당해 1라운드 출전은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박철우와 김학민은 개막전 출전을 기다리고 있다. 박철우는 작년 왼손가락에 철심을 박고 시즌을 소화했지만 이를 제거했고, 지난 달 코뼈 골절을 당했지만 회복했다. 김학민은 오른쪽 발목과 어깨가 썩 좋지 않지만 경기를 뛰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

●독주를 저지하라

여자부는 현대건설 황연주(25)의 독주를 누가 저지하느냐가 관심사다.

황연주는 작년 팀 우승도 했고 개인기량 면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올스타전과 정규리그, 챔피언결정전까지 MVP 3관왕을 달성했다. GS칼텍스로 팀을 옮긴 한송이(27)와 인삼공사에 둥지를 틀며 1년 공백을 깨고 돌아온 한유미(29) 자매가 황연주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대한항공 김학민은 지난 시즌 국내 선수들 중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도 웃을 수 없었던 아픔을 털어내겠다는 각오다. 2월20일 인천에서 열린 2010~2011시즌 V리그 경기에서 대한항공 김학민이 현대캐피탈의 수비벽을 피해 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토종 거포 3인의 장점

이름	나이	포지션	신장	장점
박철우	26	라이트	198cm	큰 키와 높은 점프에서 나오는 강력한 스파이크. 어려운 볼 처리 능력 탁월.
김학민	28	레프트	193cm	상대 타이밍을 빼앗는 빠르고 정확한 공격력.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들 제치고 공격종합부문 1위.
문성민	25	레프트	198cm	전매특허인 강서브. 지난 시즌 토종 선수중 서브 부문 1위. 해외리그(독일) 경험과 기록 없는 플레이.

“드림식스 매각 실패는 내 책임” 이동호 총재 전격 사퇴

이동호(53·사진) 한국배구연맹(KOVO) 총재가 서울 드림식스 배구단(옛 우리캐피탈) 매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재직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났다.

이 총재는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연맹 이사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서울 드림식스 운영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 총재가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홍보팀 관계자들조차 “이날 오전 이사회가 끝난 뒤에야 총재가 사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해 책임을 통감하고 총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이 총재의 사의를 받아들였고, 향후 이사회를 통해 신임

연맹은 이 총재가 서울 드림식스 배구단 매각과 관련해 정규시즌 개막 전까지 인수기업을 찾지 못해 연맹 기금으로 올 시즌을 운영하게 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총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이 총재의 사의를 받아들였고, 향후 이사회를 통해 신임

총재 선출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2008년 7월 취임해 우리캐피탈과 IBK기업은행 등 남녀 2개 팀 창단을 이끌어나며 5월 재선에 성공했지만 5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번 시즌 서울 드림식스 배구단을 연맹 관리하에서 치르기로 결정했고, 타 구단과의 전력차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선수도 뽑기로 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제자들의 수다



18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새 시즌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맨아래 왼쪽부터 GS칼텍스 이선구 감독, KGC인삼공사 박성용 감독, 현대건설 황연주 감독, 흥국생명 차해원 감독, IBK기업은행 이정철 감독, 도로공사 여창선 감독. 연합뉴스

“황현주·이선구 감독님 술 끊으세요” ^^

“연습경기 후 또 연습…감사드려요” TT

시즌 개막을 앞둔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가 열린 18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장들의 입담이 불만했다. 각자 사령탑에게 하고픈 말이 화두가 되자 평소 하고 싶었던 속내를 꺼냈다.

동갑내기 캡틴들이 뭉친 GS칼텍스와 현대건설은 ‘술’로 통했다. 먼저 포문을 연 이는 현대건설 윤혜숙(28). “(황현주) 감독님이 선수들의 모든 걸 속속 꿰고 계셔서 딱히 할 말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술 좀 끊어주셨으면 한다”고 하자 GS칼텍스의 남지연이 맞장구를 쳤다. “저희 (이선구) 감독님은 술을 약간 하시면 훨씬 귀엽고, 노래도 잘 불러주시는데 이젠 술을 드시지 않고 노래해 주셨으면 한다.” 좌중이 폭소로 가득 찬 것은 당연지사. 그러나 이대로 끝낼 그녀들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남자’에 대한 바람도 내비쳤다.

신생팀 IBK기업은행의 이효희(31)가 “훈련을 하다보면 원하는 플레이가 이뤄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웃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흥국생명 김사니(30)는 차해원 감독을 향해 “일본 전지훈련이 너무 힘들었다. 연습경기 후 또 연습에 들어갔다. 힘든 훈련 너무 감사드린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제자들의 수다에 앞서 인터뷰에 나선 감독들도 농담을 던지며 여유를 즐겼다. 특히 신임 사령탑들의 답변이 흥미로웠다.

팀의 약점을 묻자 대개 감독들이 “서브 리시브와 블로킹이 잘 안 된다”고 밝힌 가운데 GS칼텍스 이선구 감독은 “지난 시즌 통계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서브 리시브가 약한 팀으로 나왔는데, 다른 분들이 이를 단점으로 꼽으면 우리 같 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흥국생명 차해원 감독은 “수많은 약점 중 블로킹이 아주 취약하니 우리에게 마음껏 스파이크를 때려 달라”며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2011년 산재품
ERGO야는 안전방이
무조건
10,11월 자동차보험만기라면
아래번호로 전화만 딱!
다가는 야간안전방이 딱!

▶기간: 2011년 11월 30일까지 (매일 선착순 200명 / 신규고객에 한함)

첨두철민 전화 번호
1544-1666 ERGO 다음다이렉트*

화제의 대박식당! 건강 다이어트 목요리 전문점

목마을

도토리묵, 묵속 증곡속 빼주는 웰빙식품으로 각종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영양소 고루 함유 칼로리 적고 유해성소 억제하는 탄닌도 풍부 아콘산성분, 성인병예방과 항암효과 밝혀져

자연을 담은 맛있는 목요리 전문점

4계절 언제나 맛있게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30여종의 별미 목요리



순이익50%, “목마을”가맹점 모집
B급 상권이라도 문어는 가맹점마다 문전성시 대박행진!!



계절매출에도, 유행성 가축전염병에도 영향을 받지않는 4계절 건강음식점-목마을

- 주방장 없이도 손쉽게 맛있는 목요리 조리가능
- 창업자본 및 점포규모에 따라 맞춤창업 가능
- 장사 않되는 매장, 과감히 “목마을”로 업종 변경!
- 권리금 없는 B급 상권 가맹점주 상담 대환영!

가맹점상담문의
1644-7792

성공창업 인가검색에!
목마을
www.mukmaeul.co.kr